

# 가족친화경영 선행연구에 관한 비판적 검토

## - WLB를 중심으로 -

이 주 연(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사과정) · 최 석 호(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최근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즉,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족친화경영’은 출산·양육의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 교육, 훈련들을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영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족친화정책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연구의 경향과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적인 시각과는 달리 WLB를 둘러싼 전반적인 논의에 해당하는 이론적 연구를 거쳐 국가별, 기업별 WLB의 사례를 다룬 경험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문제의식을 형성하는데 토대가 된 국외문헌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연구는 여기학 세미나를 통해 WLB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 이론, 쟁점, 현황, 정책 등의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여기연구에서는 생애과정이 바뀔 때마다 가족생애주기별로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조직문화와 젠더문제 연구에서는 전문여성인력의 손실이 일과 가족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해결책으로는 다양한 제도 도입과 함께 기업의 문화와 근로자 개인의 직업에 대한 가치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어 진다.

셋째, 오늘날 가사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의무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로 남성도 육아와 가사분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성과 함께 해야 할 가정의 문제이다.

넷째, 국가간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 개인과 부부의 시간할당, 작업장 조건, 성 평등에 관한 국가간 비교를 통해 노동시간의 할당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업장 구조와 문화를 들 수 있다.

다섯째 인도, 남아프리카, 일본, 미국,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7개국 국가의 WLB사례결과 이 제도의 도입배경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지만 이 제도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구성원의 만족과 육구를 충족시키는 가정지향적 정책은 종종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들이 경영자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면 본 연구는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분석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다. 둘째, 연구대상을 기업이나 개인 즉,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에 국한 시킨 것이 아니라 직급별, 성별로 세분화 확대하여 연구대상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정의하여 이전 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 비해 진일보했음을 들 수 있다.